

조계종 '조선일보 거부 운동' 결의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 동국대 전 이사 사퇴와 관련자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10월 5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최근 종교적 편견과 정치적 의도로 불교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는 대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도가 나오자 9월 28일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 등이 한나라당을 항의방문했고, 조선일보는 10월 2일자 신문에서 "문화재청이 2005~2007년 사이 월정사에 국고 47억원을 지원한 것은 신정아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는 관련 없이 사찰의 문화재 보수·정비·복원 차원에서 2004년부터 적법 절차를 거쳐 예산에 편성돼 2005년부터 집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보도했다.

또 "한나라당은 1일 '월정사 국고 지원 문

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성명서에서 "언론기관은 사실 확인 되지 않은 사안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해 불교의 위상을 손상시켜 온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특히 특정종교 편향성을 보이는 일부 언론의 경우 이런 경향이 농후한 바 이런 보도가 재발할 시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수사기관도 수사과정상의 각종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함으로써 피의사실을 재판 전에 공표하지 못한다는 국가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직시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국가 문화재와 문화유산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문화재와 문화유산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의도와 종교적 편향으로 불교계를 편향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도 신정아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종회는 9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부 신문과 방송이 이번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마치 불교계가 부정의 운신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고지원 사업 관련 보도를 예로 들며 "특히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 도가 지나쳐서 오히려 불교를 음해하려는 조짐이나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월정사 특혜 의혹 보도 등으로 불교계 위상 손상" 수차례 불교 폄훼 방송한 MBC에도 경고 메시지

표적인 일간지 '조선일보'에 대해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와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도 신정아 사건과 관련 △동국대 법인 이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 지고 전 이사는 사퇴할 것 △총무원에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징계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종회에 대해서도 각종 분규와 부작업을 낳고 있는 종책모임이 육화정신에 입각해 중단 발전에 필요한 공의를 모아주시기를 요청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찰 관리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몇몇 사찰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전제했지만, 언론기관과 수사당국, 정부당국, 정치권에 대

제를 신정아씨 교수 임용과 연관 지어 보고 있지 않으며, 그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신정아 사건과 관련 △동국대 법인 이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 지고 전 이사는 사퇴할 것 △총무원에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징계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종회에 대해서도 각종 분규와 부작업을 낳고 있는 종책모임이 육화정신에 입각해 중단 발전에 필요한 공의를 모아주시기를 요청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찰 관리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몇몇 사찰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전제했지만, 언론기관과 수사당국, 정부당국, 정치권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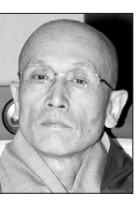
북한 수해민 돕기 쌀 108가마니 기증
서울 도선사 주지 혜사 스님은 10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원 스님(사진 왼쪽)을 예방해 북한수해복구 돕기 기금 및 쌀 108가마니를 기증했다. 남동우 기자

공주 마곡사 주지 직무대행 덕상 스님

조계종 총무원 은 10월 1일 공주 마곡사 주지직무 대행에 덕상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이에 앞서 마곡사는 9월 28일 종무회의를 열고 덕상 스님을 주지대행으로 임명해 줄 것을 총무원에 요청했다.

1964년 사미계, 1985년 구족계 수지한 덕상 스님은 제11대 중앙종회 의원과 만일사, 대조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편 주지 직각 스님은 9월 21일자로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남동우 기자



"승적·법계 관리 철저히 할 것" 법륜종 제6대 총무원장에 해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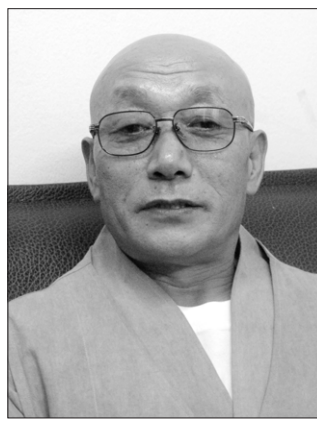
한국불교법륜종은 9월 29일 논산 총무원에서 정기 중앙총회를 열고 제6대 법륜종 총무원장에 해봉 스님의정부 대행사 회주·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1961년 양산 통도사에서 대취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해봉 스님은 1984년 한국불교 승가회 사무총장을 거쳐 1988년 법륜종 총무원 총무부장, 1990년 포교원장, 1995년 교육원장, 1998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총회의장 등을 맡아왔다.

해봉 스님은 "우리 종단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종도들의 화합과 승려 기강 및 교육이다"며 "승적 및 법계를 철저히 관리해 위계질서 확립을 철저히 하고 종풍 진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올해 말 목포 종합복지타운 개원을 시작으로 종단차원

김주일 기자



태고종 '법고 경연대회' 개최
진리의 법음을 널리 율할 '법고 경연대회'가 열린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개관을 기념해 10월 17일 오전 10시 전승관 대회장에서 제1회 법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9월 10~30일 치러진 예선을 통과한 태고종 스님 50여 팀과 당일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오른 승·재가 참가자들이 겨루게 된다. 법고와 법고춤 부분으로 나눠 치러지며, 법고 연주 시간은 5~10분으로 제한된다.

이번 법고대회에는 승·재가, 종단,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 당일 접수하는 사람은 1층 전승관에서 개최되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를 수 있다. 대상 1명과 금상·은상·동상·장려상 각각 3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태고종은 대상 2회 수상자에게 태고인 명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인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3)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동종 금강사 이운법회 봉행
총무원장 덕우 스님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덕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의 자비정신과 보살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정토로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 편찬 2차 세미나 개최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의 내용 검토'를, 연관 스님(前 화엄학림 학장)이 '금강경' 주요 개념 및 용어의 번역 문제'를, 조현준 교수(경북대)가 '금강경' 한글 번역상의 문제와 운율 문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여기에 이상은 정우서적 대표, 전영화 <금강경> 연구가, 김호성 교수(동국대), 김영운 교수(한양대)가 각각 논평을 한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 생활홍보 행사, 개인다큐(서신), 단체 생활순례, 강연,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제1362주년 佛之宗家 國之大刹 양산 통도사 개산문화대제

통도사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대조사의 외호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음력 9월9일을 맞이하여 자장율사의 연고재를 봉행함으로써 그 높은 덕화를 기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큰스님들의 높은 뜻을 잇고자 하는 공양 의식과 다채로운 개산문화대제를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51년 10월 좋은날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아산 정우 합장

문의처 055-382-7182 / 055-381-1288
차량은행 부산은천장 지하철역 앞 오전8시~9시

행사안내

- 10월18일(음력 9. 8) 목요일
 - ▲개산문화대제 사생대회/설법전
 - ▲패블특별전(천안광역시)/박물관
 - ▲산사음악회(신시뮤지컬 컴퍼니)
- 10월19일(음력 9. 9) 금요일
 - ▲불공의식(상당불공)
 - ▲개산 문화대제 법요식 사생대회 시상식/설법전
 - ▲부처님. 자장율사 가사친견전
 - ▲부도한다레/부도전
 - ▲만등 점등식/대웅전앞
 - ▲"굿계 흥" 사물놀이공연·재물잔치
- 10월20일(음력 9.10) 토요일
 - ▲동아시아 불교문화 학술대회/설법전(불교에 있어서 계단의 구조와 의미)
- 10월21일(음력 9.11) 일요일
 - ▲이주 외국인을 위한 행사

※ 보행로에서는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농수산물장터, 지역도자기 전시회, 띠달기, 지역사진 동아리사진전시회, 야생화전시회를 가집니다